

기술 개발이 우리가 살 길이다

강 효 민
〈신일엔지니어링 대표〉

부산항에 검푸른 파도가 밀려온다.

어쩌면 더 검은 경제 파탄을 몰고올 태풍이 닥칠 것만 같다.

그 파도속엔 우루과이 라운드, 유럽 E.C 공동체란 독소도 들어 있고 부두에는 수출하는 물동량 보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점점 더 많아서 걱정이 된다. 수출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중기 보다 물건을 내리는 기중기가 더 많이 움직이니 말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자

춘삼월 보릿고개, 쑥 나물로 주린 배를 채

우던 시절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쓴 노력을 댓가로 눈부신 공업발전과 수확으로 식생활 해결이란 참 좋은 배부른 사회를 만들었다. 어린 시절 영양 실조로 마른비짐 편 얼굴은 없어지고, 요즘 사람들의 얼굴엔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통실통실하고 살진 어린이들을 볼 때, 이것이 지상낙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마음이 퇴폐풍조로 인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전쟁에 승리하려면 획기적인 개발과 발명을 하고 원가절감으로서 생산량을 많이 하여야 세계 경제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유럽 E.C 경제 공동체 협정을 생각해 볼 때, 이 불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처방은 보다 더 질 좋은 제품 개발과 획기적인 발명특허를 외국에 출원해서 수출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와야 우리가 잘 살수 있고 경제 전쟁에 승리자가 될 것이다.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정치는 三合成을 이룬다.

경제가 부흥하고 문화가 꽃이 필 때,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세가지를 명심하여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

개발에 관심을 가진지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특허에 빠져들지 않았더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하고 후회도 하여 보았다. 제품개발과 특허출현은, 무척 어려운 삶을 극복하여야 한다. 고독과 싸우며 희열과 불면증과 과대 망상증 증세가 바로 특허병이다.

수년동안 모든 재산과 가정을 파멸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독한 발명가의 길이다. 그러나 희망찬 영광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다.

발명인은 이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열

심히 일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 후 영원한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하여 ...

며칠전 실용 신안 특허 등록을 한 회원이 사무실에 찾아 왔다.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였고 세계 시장에 손색이 없는 제품이지만 돈이 없어 마지막 홍보와 생산을 못하여 동업자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다. 가진 자들은, 고생하여 개발한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고, 또 기술 노하우를 찾으려는 속임수에 정말 미칠 것만 같다고 했다.

야윈 얼굴에 눈동자만은 빛나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그는 요사이 저녁, 꿈자리에 에디슨 같은 추상적 발명가의 계시를 받는다고 했다(천금을 주더라도 진실한 동업자를 구하라고). 술 한잔에 고기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두서없는 말을 잘도 하였다. 얼마나 고생과 실망을 하였으면 악령이 들어설까? 그것이 현실인지 모른다. 동지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볼 것이다. 술 한잔에 고기국 먹고, 식은 땀 흘리며 돌아서는 발명가의 뒷모습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

특허청, 공업 진흥청, 발명회등에서 발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해마다 우수 발명품을 선정하여 전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융자신청도 하고 도와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

고 있다.

1. 부산에도 우리 발명가들의 숙원사업인 발명회 장려 전시장도 개장되었다. 1년 내내 전시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문제다. 시민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이른다. 각 언론사에서도 홍보하고 도와 주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아쉽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우리 국민이 1인 1발명 즉, 한사람이 한가지를 개발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 모두 동참해야 될 줄 믿는다. 발명품에 대한 자금 융자는 팔고루 돌아가야 겠고 지원자금, 개발자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시장성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판정하여 무담보대출을 하여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줄 믿는다. 또, 특허품 시장을 열어 자본가와 발명인이 합작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여 주어야 한다.

3. 국산품 애용에 힘써 내수시장에서 수출로 발전할 수 있게 국민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발명 전시관람과 교육을 통한 홍보 및 공대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와 제품개발 기술상담에 봉사를 할 수 있게 건의하고 싶고, 이것이 꼭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발명인의 한사람으로서의 바람이다. <♣>

신 간 안 내

손쉽게 성공하는

발명의 지름길

규격 : 국판 200면

저자 : 김관형(본회 상근이사)

가격 : 3,000원